Baudelaire 詩의 時間 構造

文 忠 誠

目 次

Ⅰ. 序 論
Ⅱ. 本 論
1. 닫힘과 열림
2. 地獄 혹은 삶
3. 바라봄과 꿈꾸는 일
4. 下降과 上昇
5. 자기로부터의 逃走
Ⅲ. 結 論

Ⅰ. 序 論

時間, 時間性 또는 時間觀 등에 대한 論議는 古代 그리스때부터 있어 왔고, 中世 이후 宗敎, 哲學, 自然科學 등 여러 분야에서 刮目할만한 업적을 이룩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文學硏究에 있어서도 이에 큰 관심을 내보이고 유능한 연구가들이 나와 본격적인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은 금세기부터였다. 물론 詩人이나 作家들이 作品을 통해 줄곧 時間 問題를 追求하여 왔고, 追求하고 있는 터이다.

우리는 Baudelaire의 詩作品 가운데서 그가 참으로 時間의 重壓에 짓눌려 살면서 時間 問題를 탁월하게 다룬 많은 작품을 읽어 왔다. 그의 時間意識은 理論家들이 다져 놓고 있는 '詩에 있어서의 時間'(이를테면 經驗的 時間, 永遠性 등)으로 풀어내고 이해해서 분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었다. 그의 時間意識은 다양하여 自然的 時間, 經驗的 時間 등 여러 時間 構造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같은 觀點에서 비롯된 우리의 관심은 차차 深化된 것인데, J.P.Sartre의 L'être et le néant의 時間性 temporalité 페이지, 특히 Bergson의 持續 Durée을 批評한 짧은 글이 자그만 直觀을 우리에게 열어 주었다.[1] 이에 힘입어 時間論 등을 비롯한 수종의 텍스트를 탐독하면서 Baude-

1) J. -P. Sartre, *L'Être et le néant*, Éditions Gallimard, 1943. pp. 145~210참조. 짧은 글은 다음과 같다 : La philosophie bergsonienne a repris cette idée : en tournant ou passe, un événement ne cesse pas d'être, il cesse d'agir, tout simplement, mais il demeure 《à sa place》, à sa date, pour

laire가 지적했듯이 '時間은 삶'에 다름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Baudelaire의 작품을 읽어 내는 데 있어 이 초점에 맞춰 現象學的 方法으로 그의 詩의 時間 構造를 분석해냄으로써 그의 詩의 理解에 접근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抒情詩는 直說法 現在의 基本時制를 취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으로 드러난 것이지만, 뒤에 論議하게 되는 '과거를 향한 현재', '현재적 현재', '몽상적 현재' …등의 낯선 용어는 우리가 편의상 사용한 것임을 밝혀둔다.

그의 詩가 보여주는 다양한 時間 樣相은 그의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흐르고 있는 意識이 時間의 變奏 속에서 詩的 想像力의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時間觀은 自我를 解明하려는 인간 탐구로 이해된다.[2]

우리는 그가 苦痛과 揶揄와 忿怒 속에서 위대한 넋을 지닌 詩人이되고자 별렀던 삶을, 그의 다음 싯귀에서, 時間에 짓눌려 산 눈 뜬 인간임을 쉽게 읽어낼 수 있다.

Et j'ai pompé ta vie avec ma trompe immonde ![3]

삶은 다른 表現을 빌리자면 時間이므로, 그의 詩가 나타내 주는 다양한 時間 樣相은 그가 追求했던 여러 삶의 樣相에 다름아니다.

우리는 다음의 다섯 부문으로 나눠 그의 詩에 內在해 있는 時間 樣相을 분석하면서 그의 詩의 時間 構造를 파악하고자 한다.

1. 닫힘과 열림

'과거를 향한 현재'가 어린 시절을 거쳐 前生 la vie antérieure까지 확대된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苦痛이므로 이 苦痛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러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 따라서 그의 '과거'는 '현재'를 풍요롭게 하고자 하는 熱望이다.

---

l'éternité.Nous avons ainsi restitué l'être au passé et c'est fort bien fait, nous affirmons même que la durée est multiplicité d'interpénétration et que le passé s'organise continuellement avec le présent. Mais nous n'avons pas pour autant rendu raison de cette organisation et de cette interpénétration; bref exister *pour nous*. S'il inconscient comme le veut Bergson, et si l'inconscient c'est l'inagissant, comment peut-il s'insérer dans la trame de notre conscience présente ? Aurait-il une force propre ? Mais cette force, alors, est présente, puisqu' elle agit sur le présent? Comment émane-t-elle du passé en tant que tel? Renversera-t-on la question, comme Husserl, et montera-t-on dans la conscience présente un jeu de ⟨rétentions⟩ qui accrochent les consciences d'antan, les maintenant à leur date et les empêchent de s'anéantir? Mais si le cogito husserlien est donné d'abord comme instantané, il n'est aucun moyen d'en sortir.Nous avons vu,au chapitre précédent, les protensions secogner en vain aux vitres du présent sans pouvoir les briser. Il en est de même pour les rétentions.…

2) H. meyerhoff, *Time in Literature*,(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55), p. 81.

3) Baudelaire, *Oeuvres complètes I*, (pléiade, 1975), p. 81.

2. 地獄 혹은 삶

自然的 時間으로 이해되는 '현재적 현재'라는 時間은 그에게 이 세상이 다름아닌 地獄이며 그러므로 이 곳에서의 脫走를 시도한다. 그것은 社會的 人間的 疎外에서 誕生된 時間 意識에 뿌리를 두고 있다.

3. 바라봄과 꿈꾸는 일

'몽상적 현재'로서 그가 바라다보는 일은 곧 꿈꾸는 일이다. 詩的 想像力을 통해 꿈꾸는 일은 이 세상에서 그가 해 낼 수 있는 유일한 至福에 이르는 길임을 보여 준다.

4. 下降과 上昇

'몽상적 미래를 향한 현재'로 地獄으로의 下降에서 빚어지는 惡의 세계와 理想鄕을 찾는 上昇을 몽상하는 二元性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5. 자기로부터의 逃走

'미래 지향의 현재'의 時間은 反抗의 헛됨과 죽음을 극복하고 '떠남'이란 時間을 창조해 낸다. 이 '떠남'의 時間은 創造主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닌 그가 창조해 낸 것이며 그래서 그는 자기를 초월하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것은 자유로움을 획득하는 것이다.

Ⅱ. 本　　論

1. 닫힘과 열림

Baudelaire는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의 情況을 詩集 Les Fleurs du mal에 맨 처음 싣고 있는 詩, Bénédiction의 첫 聯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어 사슴을 섬뜩하게 한다.

> Lorsque, par un décret des puissances suprêmes,
> Le Poète apparaît en ce monde ennuyé,
> Sa mère épouvantée et pleine de blasphèmes
> Crispe ses poings vers Dieu, qui la prend en pitié:[4]

詩人이 이 지겨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태어남은 그의 어머니의 產苦를 덜어두고라도 이미 時間

4) Ibid., p. 3.

의 産物임을 일깨워 준다. 神意에 따른 出産이라할지라도 瀆神의 마음 벅차 질겁한 산모가 가엽게 여기는 神을 향해 삿대질을 할 정도라면 그 태어남은 이미 심상치 않은 것임이 분명하다.

이래서 그는 詛呪 받은 詩人의 모습을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되고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 悔恨 remonds, 罪惡 crime, 苦痛 douleur에 짓눌려 이것들에서 벗어나고자 그의 몽상 rêverie은 '과거'에 집착하게 된다. 이같은 집착은 Baudelaire의 몽상이 쉼이없이 神秘 속으로 더 멀리 파고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終着點이거나 途中下車가 있을 수 없다. 이 몽상은 어떤 最上의 認識에 도달하지 못하며, 現實은 항상 몽상을 위해 執行猶豫로 남아 있게 된다. 空間 속에서처럼 時間 속에서도 그의 風景은 한계가 없다.[5]

mais le vert paradis des amours enfantines,
Les courses, les chansons, les baisers, les bouquets,
Les violons vibrants derrière les colines…[6]

우리는 이같은 이미지들을 대하면 우리의 어린 시절조차 심리적으로 아름답게 나타나 보이는 것 같다. 우리의 내밀한 삶의 매력있는 사건 앞에서 심리적인 아름다움에 대해 어떻게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아름다움은 우리 안에, 記憶 깊숙이 잠겨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활기를 주고 아름다운 生命力을 만들어 주는 飛翔의 아름다움이 된다. 自由에 대한 認識을 받아들이는 데 가장 좋은 領域이 바로 몽상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어린애의 몽상 속에 끼어 들 때 그 自由를 붙잡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린애였을 때 自由를 꿈꾸었듯이 自由에 대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잊어야만 逆說이 될 것이다. 꿈꾸는 自由 말고 어떤 다른 心理的 自由가 우리에게 있는가? 心理的으로 말한다면 몽상 속에서 우리는 자유로운 存在인 것이다. 潛在的인 어린 시절 une enfance potentielle이 우리 속에 있다. 우리가 몽상 속에서 그것을 되찾으려 할 때, 現實에서 보다 훨씬 더 실현 가능성 속에서 그것을 다시 살게 된다. 우리는 어린 시절의 온갖 가능성을 꿈꾼다.[7]

몽상의 과거로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질을 쳐서 자신의 最初의 순간, 최초의 장소에 〈찬란함이 童貞女처럼 푸르고 맑고 깊숙이 반짝이는 다른 大洋의 한 가운데, autre océan où la splendeur éclate, Bleu, clair, profond ainsi que la virginité〉[8] 도달했다고 믿을 때에도 더욱 순결한 童貞에의 의심과 더 절대적인 최초의 始發點이 있으리라는 의심이 언제나 퍼진다. 〈綠色의 樂園, le vert paradis〉[9]은 어쩌면 더 太古的 녹색인 다른 낙원에의 꿈이며, 어린 시절 저편에 있는 또 다른 어린 시절에의 꿈에 지나지 않을 따름이며, 실제로 존재했던 어린 시절의 은밀한 즐거움들은 다만 어린 시절 저편에 있는 다른 어린 시절에의 접근을 막는 역할을 해내고 있을 뿐임이 분명하다. 秘密 속에서 〈저녁마다 술병을 가지고 꽃다발에 묻혀, avec les blocs de vin, le soir, dans les bosquets〉, 〈언덕 뒤에서 떨리는, vibrant derrière les colines〉[10] 비오롱 소리 저쪽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리

5) J. -P.Richard, *Poésie et profondeur*, (Éditions du Seuil, 1955), p. 100.
6) Baudelaire, op. cit., p. 64.
7) G. Bachelard, *La poétique de la rêverie*,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60), p. 86.
8) Baudelaire, op. cit., p. 64.
9) Ibid., p. 64.
10) Ibid.

고 가리개나 꽃다발을 가로질러 간다 하더라도, 前生 la vie antérieure 自體 속으로 〈하늘, 파도들, 장려함의 한 가운데로, au milieu de l'azur, des vagues, des splendeurs〉[11] 조심성 있는 意識의 깊은 곳을 향해 왼통 집중되어 있는 꿈꾸는 風景의 中心部로 다시 내려간다 해도, 역시 不安感과 이 集中點 자체를 넘어서려는 움직임과 비밀스런 영원한 괴로움을 심화하려는 움직임만을 발견하게 될 뿐이다. 存在의 中心部를 향하는 모든 노력은 여기서 鄕愁 nostalgie에 이른다.

이 鄕愁는 Baudelaire의 모든 몽상의 中心部에서 발견되는 것으로,[13] 우리는 어린 시절의 온갖 가능성을 꿈꿀 수 있다. 孤獨에 대한 추억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고독한 어린애였던 세계를 理想化한다. 그래서 어린 시절의 詩人과 독자 사이에는 우리 속에 持續되고 있는 어린 시절을 중개로 하는 교통이 있게 된다. 이 어린 시절은 다른 곳에서 삶에 있어서 열림의 연민으로 살면서 어린애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면서 처음 삶의 동료였던 것같이 대해준다.[14]

Baudelaire의 moesta et Erebunda는 이렇게 해서 '과거'이야기가 '현재'의 시로 우리에게 읽힌다. 어린 시절을 꿈꾸면서 우리는 몽상의 宿所,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 줄 몽상을 꿈꾼다. 孤獨의 세계의 첫 거주자로 우리를 만든 것이 몽상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15]

여기서 더 꿈꾸어 가면, 앞서도 말했지만, 즉 더 먼 '과거'로 내려가면, 우리는 그의 前生 la vie antérieure과 대면하게 된다.

> C'est là que j'ai vécu dans les voluptés calmes,
> Au milieu de l'azur, des vagues, des splendeurs
> Et des esclaves nus, tout imprégnés d'odeurs,…[16]

그가 오랜동안 살았던 廻廊은 바다 태양이 숱한 불빛으로 물들고 큰 기둥들이 곧고 장엄하게 늘어서 저녁이면 玄武岩이 동굴같은 곳이고, 하늘 그림자를 뛰놀게 하는 물결이며 풍부한 음악의 和音은 눈동자에 신비로운 저녁놀을 섞어 주던 곳이다. 참으로 고요한 逸樂 속에 우리가 살아 온 곳인 듯 싶어진다. 하늘과 파도와 찬란한 햇빛 가운데 香氣 짙은 벌거숭이 노예들에 둘러싸여 살았고, 종려나무 가지로 그들은 이마를 식혀주곤 했다.[17] 그렇지만 비밀스런 苦痛의 誕生을 우리는 알고 있다. 前生에도 至福만 있는 것은 아님을. 그 비밀스런 苦痛이란 삶에 다름아니다. 그의 '과거'는 '현재'로 되돌아 올 때, 그의 意識을 짓누르는 時間은 忘却의 허울을 벗어내 놓고 그의 삶을 빨아

11) Ibid.
12) Richard, op. cit., pp. 100~101.
13) Ibid., p. 101.
14) Bachelard, op. cit., p. 86.
15) Ibid., p. 87.
16) Baudelaire op. cit., p. 10.
17) Tzvetan Todorov, *Poétique*,(Éditions du Seuil, 1968), pp. 55~56 참조 :
Le récit itératif, enfin, qui consiste à désigner par un seul discours(une phrase) des événements qui se répètent est un procédé connu la littérature classique, où il joue cependant un rôle limité : l'écrivain évoque habituellement un état stable initial à l'aide de verbes à l'imparfait(à valeur itérative), avant d'introduire la série d'événements singuliers qui constitueront son récit proprement dit.

먹는 것이다.[18]

'과거'는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똑같은 윤곽으로 똑같은 빛으로 記憶에 되살아나지도 않는다. '과거'가 인간적인 가치의 그물에, 잊어버리지 않는 存在의 內面性의 價値 속에 잡히자마자, 그것은 記憶하는 정신 l'esprit과 자신의 忠實性을 즐기는 넋 l'âme의 二重의 힘 속에서 나타난다. 넋과 정신은 같은 記憶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19] '과거'의 환희에 찬 몽상의 時間 속에서 '현재'로 돌아올 수 밖에 없는 것은 記憶을 벗어나지 못하는 데 起因한 것으로, 記憶의 複雜性과 混亂性은 記憶된 事物들 사이의 관계나 統一的이거나 順列的인 것이 아니고 散發的이며 動的인 順序를 나타내고 있어서이다. 記憶된 事物에는 공포와 희망이 융합되고 혼합되어 있고, 여러 소망과 환상은 사실로서 생각날 뿐만 아니라 생각난 사실은 '현재'의 급박한 사정과 '과거'의 공포와 '미래'의 희망에 의해서 항상 수정되고 다시 해석되고 再生된다. 그러므로 時間的 連續의 客觀的 秩序는 우리의 記憶 構造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지만 그 부분적 일면만을 형성하고 있을 따름이다.[20] 그래서 '현재'를 너머 '과거'로 내려간 그의 時間은 '닫힘'에서 '열림'의 세계를 터놓아 '현재'를 더욱 풍요롭게 하자는 熱望의 時間으로 이해된다.[21]

2. 地獄 혹은 삶

헤라클리투스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는 불가능에 대해서 곤혹을 느꼈던 것처럼 우리의 內部에 흐르고 있는 時間의 江에 대해서도 같은 의혹을 품게 된다. 우리는 時間 속에서 存在하고, 時間을 통해서 存在하며, 時間에 의해서 항상 變化하는 存在이기 때문이다. 時間은 우리를 만들고, 우리를 파괴하고 있다.[22]

Trois mille six cents fois par heure, la Seconde
Chuchote: Souvenirs-toi ! -Rapide, avec sa voix
D'insecte. Maintenant dit: Je suis Autrefoi,…[23]

L'horloge는 擬人法을 써서 時間과 時間에 짓눌려 사는 삶의 모습을 탁월하게 노래한 작품으로 꼽을 수 있다.

時間은 악하고 幻影的인 것이어서 時間 속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 우리도 악하고 幻影的인 것이다. 완전한 實在는 항상 時間을 초월하고, 時間 外的으로 存在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理想的인 삶은 時間과 欲求와 個性으로부터 자유로와졌을 때만 가능한 것이다.[24]

따라서 Baudelaire가 파악한 〈잊지 말라 ! 벌레같은 목소리로 재빨리 '현재'는 말한다, 나는 '과

18) Baudelaire, op. cit., p. 81.
19) Bachelard, op. cit., p. 89.
20) Meyerhoff, ***Time in literature***, pp. 21~22.
21) Bachelard, op. cit., pp. 93~96 참조.
22) Meyerhoff, op. cit., p. 29.
23) Baudelaire, op. cit., p. 81.
24) Meyerhoff, op. cit., p. 31.

거'다〉[25]는 詩的 陳述은 자기 삶에 처절하게 눈뜬 비참한 절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도 〈시시덕거리는 人生이여! 寸陰은 母岩이니 金을 추려내기 전에는 버리지 말라! Les minutes,mortel folâtre, sont des gangues? Qu'il ne faut pas lâcher sans en extraire l'or!〉[26]고 삶의 보람을 찾는데 苦痛의 練金術師로서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다. 그렇지만 불완전한 인간이 하는 일에는 限界가 있고, 자기가 꿈꾸는 위대한 일을 쉽게 완성시킬 수는 없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에게는 '우울, spleen'과 '회한, remords'과 '권태로움, ennui'이 생겨나는 것이다.

Baudelaire의 가장 큰 원수의 하나는 '우울'이다.

그는 그래서 〈千年을 산 것보다도 더 많은 추억을 지니게 되고, J'ai plus de souvenirs que si j'avais mille ans,〉 [27] 〈주룩주룩 내리는 장마달의 비는 음산한 추위와 죽음의 그림자를 만들어 내어〉,[28] 〈달마저 싫어하는 끔찍한 墓地, Je suis un cimetière abhorré de la lune〉[29]가 된다.

'우울, spleen'(4편)이 보여주는 '비, la pluie'의 이미지는 늘 스스로 젖어 있는데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는 '흐름'을 나타내 준다. 더우기 〈넓은 감옥 창살〉, 〈한 떼 더럽고 말없는 거미가 우리의 두뇌 깊숙이 들어와 줄을 칠 때〉 혹은 〈북도 음악도 없는 긴 상여가 마음 속에 서서히 줄지어 가는〉 처참함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권태', '고뇌'는 젊은 詩人을 늙은 詩人으로 만들어 버리고,[30] 마침내 죽음같은 '忘却의 초록빛 물'이 흐르는 絶望의 이미지를 낳게 한다.

다음 引用하는 '우울 spleen' 시편은 인생을 다 산 죽음을 섬찟하게 노래하고 있다.

Je suis comme le roi d'un pays pluvieux,
Riche, mais impuissant, jeune et pourtant très vieux,
Qui, de ses précepteurs méprisants les courbettes,
S'ennuie avec ses chiens comme avec d'autres bêtes.
Rien ne peut l'égayer, ni gibier, ni faucon,
Ni son peuple mourant en face du balcon.
Du bouffon favori la grotesque ballade
Ni distrait plus le front se transforme en tombleau,
Et les dames d'atour, pour qui tout prince est beau,
Ne savent plus trouver d'impudique torlettes
Pour tirer un souris de ce jeune squelette.
Le savant qui lui fait de l'or n'a jamais pu
De son être extriper l'élément corrompu,
Et dans ces bains de sang qui des Romains nous viennent,
Et dont sur leurs vieux jours les puissants se souviennent,
Il n'a su réchauffer ce cadavre hébété
Où coule au lieu de sang l'eau verte du Léthé.[31]

25) Baudelaire, op. cit., p. 81.
26) Ibid.
27) Ibid., p. 73.
28) Ibid., p. 72.
29) Ibid., p. 73.
30) Ibid., p. 663.
—On dit que j'ai trente ans; mais si j'ai vécu trois minutes en une… n'ai-je pas quatre-vingt- x dix ans⌊?
31) Ibid., p. 74.

L'héautontimorouménos에서는 〈나는 상처이자 동시에 칼! 나는 따귀 때리기이자 동시에 뺨! 나는 찢어지는 사지이자 동시에 바퀴! 또 사형수이자 동시에 사형집행인![32]〉이라고 '현재'의 캄캄한 存在를 노래하고 있다.

精神主義者이며 物質主義者인 그는 누구보다도 더 자신의 肉體의 노예였고, 자신의 〈어두운 知覺, perceptions obscures〉의 노예였다. 더우기 관습적인 윤리와 심리학과는 결별해 버린 그는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분명한 사실로 수락하고, 그 즉각적인 귀결을 자신의 詩 속에서 개발하게 된다. 〈나른함으로 가득 찬, chargé de nonchaloir〉 어떤 香氣는 그의 모든 힘들을 연결시켜서 〈넋을 변화시켜, changer son âme〉 줄 수 있다.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 無意識의 欲求들과 고등한 熱望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점은 사람들이 오랜동안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이지만 그것을 마음 깊이 느낀다는 것, 요컨대 심리적 삶의 統一性을 意識한다는 것이야말로 Baudelaire의 詩가 제시해 준 가장 중요한 사항들 중의 하나이다.[33]

그의 詩에 나타난 二元性의 문제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삶의 두려움, 삶의 황홀함, horreur de la vie, extase de la vie〉이라고 그는 무서운 통찰력을 가지고 적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영원한 不滿足의 宣告를 받은 것이며 낡아버린 天性을 극복하고 〈끔찍한 時間의 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끊임없이 찾을 도리 밖에 없는 것이다.[34]

그에게 있어 이 세상 ici-bas은 地獄이므로, 아무리 다른 곳인 저 곳 là-bas을 꿈꾼다해도, '현재'의 이 곳에서는 늘 젖어 있기 때문에 時間 자체가 우울하다. 이때 時間은 그에게 暴君으로 군림해서 죽음과 파멸로 그를 몰고 간다. '時間과의 싸움'에서 그는 이겨보려고 온갖 애를 써보지만 時間의 重壓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시각각으로 時間에게 먹히며 苦痛과 苦惱와 결국 敗北를 맛볼 따름이다.

이제 虛無의 맛 ce goût du néant은 깊어져서 諦念 속에서 짐승같은 잠을 잘 수 밖에 없음을 안다.[35]

Et le Temps m'engloutit minute par minutes
Comme la neige immense un corps pris de roideur;
Je contemple d'en haut le globe en sa rondeur
Et je n'y cherche plus l'abri d'une cahute.[36]

3. 바라봄과 꿈꾸는 일

Il y a des moments de l'existence où le temps et l'entendue sont plus profonds,et le sentiment de l'existence immensément augmenté.[37]

32) Ibid., p. 79.
33) M. Raymond, *De Bandelaire au Surréalisme*, (José corti, 1940), p. 18.
34) Ibid.
35) Meyerhoff, *Time in literature*, p. 115.
36) Baudelaire, op.cit., p. 76.
37) Ibid., p. 658.

'몽상적 현재'에서 바라다 보는 일은 곧 꿈꾸는 일이다. 그 순간은 時間과 空間이 한결 심오해 지고, 存在의 감각이 무한히 강렬해짐을 느낀다. 이때 그는 Bachelard의 말을 빌리면, '존재의 우물'을 길어올리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자기 탐구의 고통이면서 즐거움인 것이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과 '바라보는 것'은 같은 눈을 갖고 하는 행위이지만 전혀 다른 행위인 것이다.

> Je crois que le charme infini et mystérieux qui gîte dans la contemplation d'un navire, et surtout d'un navire en mouvement, tient, dans le premier cas, à la régularité et la symétrie qui sont un des besoins primordiaux de l'esprit humain, au même degré que la complication et l'harmonie, –et, dans le second cas, à la multiplication successive et à la génération de toutes les courbes et figues imaginaires opérées dans l'espace par les éléments réels de l'objet.
> L'idée poétique qui se dégage de cette opération du mouvement dans les lignes est l'hypothèse d'un être vaste,immense, compliqué, mais eurythmique, d'un animal plein de génie, souffrant et soupirant tous les soupirs et toutes les ambitions humaines.[38]

여기에는 時間이 없다. 藝術的 瞑想에서 時間의 經過로부터 解放된 無時間的 自我를 具體化하는 한 말이다.[39] 그래서 그는 陶醉 Ivresse의 詩學을 세우게 되고 〈가증스런 삶 horrible vie〉, 〈공포의 都市 horrible ville〉[40]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 ……Pour ne pas sentir l'horrible fardeau du Temps qui brise vos épaules et vous penche vers la terre, il faut vous enivrer sans trêve.
> Mais de quoi? De vin, de poésie ou de vertu, à votre guise. Mais enivrez–vous.[41]

술이든 詩든 德에 취해 있으면 時間의 重壓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것인데, 다른 방법으로 그는 官能을 끌어내기도 한다.[42] 그러나 과연 어떤 방법으로 陶醉에 이를 수 있는 것일까. 詩의 경우, 이 은밀한 秘密을 찾아내는 데 있어 散文詩 Les fenêtres가 우리를 도와준다.

Les fenêtres는 그가 他者와 一致感을 갖게 해주는 '몽상의 門'으로, 창문을 통해서 주름살 투성이 한 가난한 여인을 훔쳐보면서 심지어 눈물조차 흘리면서까지, 그는 이 가난한 여인이 되어 傳說을 엮는 것인데, 이 傳說은 사실이거나 아니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살 수 있도록 도와줘서 내가 存在하며 내가 누구인가를 느낄 수 있도록만 해준다면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촛불에 의해 불 밝혀진 창문만큼 깊고, 신비하고, 풍요롭고, 어둡고 동시에 빛나는 오브제 objets는 없다는 것이다.[43] 나 자신이 아닌 他者 속에 살면서 쾌락을 찾아내고 혹은 괴로와하는 이같은 몽상의 방법은 萬物 認識에 대한 그의 交感의 世界이다. Les Fleurs du mal의 Les tableaux parisiens의 대부분 詩篇들은 이 交感의 世界에서 빚어진 所産이다.

---

38) Ibid., pp. 663~664.
39) Meyerhoff, op. cit., pp. 56~57 참조.
40) Baudelaire, op. cit., p. 287.
41) Ibid., p. 337.
42) Ibid., p. 343. pp. 663~664. 참조
43) Ibid., p. 339.

Le long du vieux faubourg, où pendent aux masures
Les persiennes, abri des secrètes luxures,
Quand le soleil cruel frappe à traits redoublés
Sur la ville et les champs, sur les toits et les blés,
je vais m'exercer seul à ma fantasque escrime,
Flairant dans tous les coins les hasards de la rime,
Trébuchant sur les mots comme sur les pavés,
heurtant parfois des vers depuis longtemps rêves.[44]

그는 책상 머리에서 作詩에만 몰두하지 않는다. 내밀한 쾌락을 숨기고 있는 창문들이 누추한 집마다 달려있는 옛 교외 길로 외로이 幻像의 검술을 닦으러 나가는 것인데, 鋪石 위에서 비틀대듯이 낱말들 mots을 밟으며 비틀대기도 하고, 때로 오래전부터 꿈꾸워온 싯귀와 만나기도 하는 것이다. 그가 이마 가득 만나는 것은 le soleil만이 아니다. Une mendiante rousse, Le cigne, Les sept vieillards, Les petites vieilles, Les Aveugles, Une Passante Le Squelette laboureur를 만나기도 하고, Le crépuscule du soir, Brunes et pluies, Le crépuscule du matin 혹은 Le jeu, Danse macabre, L'amour du mensonge 따위 등과도 만나는 것이다.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들에게 품었던 형제의식은 보편화된 말이지만, 詩的 想像力을 통해 그가 몽상한 美의 세계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충격을 준다. 이 충격은 잠자고 있는 우리의 의식을 깨워내는 삶이다. 아무리 時間 속에 일어난 것들은 역시 時間에 의해 消滅된다고 하지만, 이같은 시적 몽상은, 〈목발짚은 사람들을 다시 젊게 하고, 소녀들처럼 즐겁고 다정하게 만들며, 언제나 꽃피고 싶은 不滅의 靈魂 속에 자라서 익은 收穫〉[45]의 열매를 따게 해 주는 것이다. 그는, 〈밤 속에 꿈같은 宮殿〉[46]을 세워놓고, 〈외딴 섬에 잊혀진 水夫들과 포로들…… 그밖에 수많은 다른 불행한 사람들〉[47]을 눈물겹게 걱정하기도 하고, 〈꼭둑각시처럼 꼬부라진 곱사등에 怪物같은 모습으로 아장대며 걸어가는 작은 노파들〉[48]을 뒤따라다니며 찬란했던 그녀들의 젊은 날의 사랑을 꿈꾸기도 하면서 눈물로 江을 이룬 內歷을 알아본다.

L'une, par sa patrie au malheur exercée,
L'autre, que son époux surchargea de douleurs,
L'autre, par son enfant Madone transpercée,
Toutes auraient pu faire un fleuve avec leurs pleurs ![49]

44) Ibid., p. 83.
45) Ibid.
46) Ibid., p. 82.
47) Ibid., p. 87.
48) Ibid., pp. 89~91.
49) Ibid., p. 90.

그래서 存在하는 것조차 창피한 듯이 담벼락을 따라가는 등굽은 노파들을 멀리서 아버지인양 다정스레 지켜보며 은밀한 즐거움을 그는 맛보는 것이다. 그 즐거움이란 苦痛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이 그의 내밀한 삶인 것이다.

그는 혼자 있을 때나 群衆 Les foules 속에 있을 때나 孤獨하다. 그가 群衆을 바라볼 때 깨닫는 '고독의 현재' 樣相은 二元性을 갖고 있다. 하나는 群衆에 대한 憎惡로 나타나고,[50] 다른 하나는 群衆과의 交感에서 이룩되는 陶醉로 나타난다.[51]

'몽상적 현재'로 우리가 풀이하는 것은 꿈꾸는 자의 쾌락 Voluptéé에 지나지 않지만, 그것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는 原動力이 되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꿈꾸지 않는 자도 삶의 苦痛에서 잠시도 벗어나지 못한다. 삶의 苦痛은 時間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의 몽상은 여기에만 머무는 것은 아니다. 그는 陶醉 다음에 오는 새로운 恐怖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 En rouvrant mes yeux pleins de flamme
> J'ai vu l'horreur de mon taudis,…[52]

4. 下降과 上昇

인간은 저마다 등에 어마어마한 怪物을 짊어지고, 어디로 가고 있는 지조차 모른 채, 〈걸어가야 한다는 어떤 확실한 必要性, un invincible besoin de marcher〉에 떠밀리고 있다.[53]

地獄으로의 下降의 世界에서 빚어지는 삶은 그에게 세상의 終末이 가까왔음을 깨우쳐 주고, 세상이 이어 存續하리라는 또 하나의 이유는 存在하고 있다는 것 뿐임을 示唆해 준다.[54] 더구나 다음의 痛恨은 그의 삶의 狀況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 Quant à moi qui sens quelquefois en moi le ridicule d'un prophète, je sais que je n'y trouverai jamais la charité d'un médecin. Perdu dans ce vilain monde, coudoyé par les foules, je suis comme un homme lassé dont l'oeil ne voit en arrière,dans les années profondes,que désabusement et amertume, et devant lui qu' un orage où rien de neuf n'est contenu, ni enseignement, ni douleur. Le soir où cet homme à volé à la destinée quelgues heures de plaisir, bercé dans sa digestion, oublieux–autant que possible–du passé, content du présent et résigné à l'avesir, enivré de son sang–froid et de son dandysme, fier de n'être pas aussi bas que ceux qui passent, il se dit en contemplant la fumée de son cigare: Que m'importe où vont ces consciences?[55]

그렇지만 아주 깨끗이 모든 것을 拋棄한다거나 諦念한다는 것은 詩人이 할 일이 아님을 그는 잘 알고 있다. 그러자 하늘과 바다가 그에게 열린다. 하늘과 바다의 無限 속을 凝視하면서 더없는 歡

50) Ibid., p. 279, p. 284 et pp. 287~288 참조.
51) Ibid., pp. 291~292 참조.
52) Ibid., p. 103.
53) Ibid., p. 282.
54) Ibid., p. 665.
55) Ibid., p. 667.

喜를 맛보게 된다. 저 멀리 水平線 쪽에서 가늘게 떨고 있는 자그만 한 폭의 돛—그것은 微小함과 孤立으로 인해 물결의 단조로운 멜로디 같은 자기의 돌이킬 수 없는 存在를 닮았다고 한다.[56] 그래서 모든 것들이 나에 의해서 思考되고, 혹은 그것들에 의해 내가 思考당하는 것인데, 이같은 思考는 詭辯이나 三段論法, 演繹法 등에 의해서가 아니라 音樂的으로 繪畵的으로 思考하는 것이다. 따라서 여러 생각들이 솟아져 나오지만, 그것은 나로부터 나왔건 事物로부터 나왔건 곧 너무나 짙어지는 것이다. 官能 속의 짙은 에너지는 불편함과 어떤 명확한 苦痛을 惹起시킨다. 지나치게 팽팽해진 나의 神經들은 점점 날카롭게 고통스런 떨림들 vibrations을 재촉할 뿐이다.[57] 이 떨림들을 鎭靜시키는 방법은 '조용히 흔들기, le bercement'이다.[58]

그는 자기 방안에 蟄居한다. 그것은 영혼의 上昇을 피하려는 몽상을 위해서이다. 散文詩 La chambre double은 '몽상하는 영혼의 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방안의 構造를 살펴보자.

이 곳에서 영혼은 悔恨과 欲望을 향기롭게 하는 게으름의 沐浴, un bain de paresse[59]을 하고 있다. 家具들은 길고 나른하게 맥이 풀려 꿈꾸는 모습을 하고 있고, 옷감들도 꽃이나 하늘이나 석양처럼 말없는 말을 속삭이고 있다. 벽에는 구역질나는 藝術品들이란 없다. 이 곳에서는 모든 것이 調和의 풍요로운 빛과 감미로운 어두움이 있어, 퍽 가벼운 濕氣가 섞인 가장 그윽한 無限小의 선택된 香氣가 空氣 속을 헤엄치고 있어, 이 곳에서 졸고 있는 에스프리는 溫室의 感覺에 따라 흔들리고 있다. 모슬린 커튼이 창문과 침대 앞에 넉넉히 비오듯 드리워져서 새하얀 瀑布로 펼쳐진다. 이 침대 위에 '꿈의 女王'이 누워 있다. 불꽃이 석양을 꿰뚫고 있는 눈동자, 이 女王의 눈동자는 인간의 視線을 誘惑하고 사로잡아 먹어버린다.

La chambre double의 至福에 대한 분위기는 이같이 몽상의 분위기의 構造를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最上의 삶, 時間의 사라짐은, 그가 陶醉에서 깨어나는 이 詩의 중간부분부터 급전환되어 上昇에서 下降하게 된다.

> Non ! il n'est plus de minutes, il n'est plus de secondes ! Le temps a disparu : c'est l' Éternité qui règne, une éternité de délices ![61]

時間이 사라져 永遠이 다스리는 '至福의 永遠'을 맛보지만, 방문쪽에서 둔탁한 소리가 울려옴으로써 깨어남의 時間이 나타나서 '몽상의 방'을 '現實의 방'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지금까지 꿈꾸던 삶은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의 웨침은 너무나 처절하다.

---

56) Ibid., p. 278.
57) Ibid.
58) Richard, *Poésie et profondeur*, pp. 136~143 참조.
59) Ibid., p. 142. la paresse에 대한 Richard의 탁월한 풀이가 있다.
…Et l'on saisit alors toute l'ambiguïté la paresse baudelairienne, que se définit à la fois par la fidélité à une essence fixe et par la liberté qui anime et nuance indéfiniment cette essence.
60) Baudelaire, op. cit., pp. 280~281.
61) Ibid., p. 281.

Horreur ! je me souviens ! je me souviens ! oui ! ce taudis, ce séjour de l'éternel ennui est bien le mien.[62]

눈에 띄는 것이라고는 먼지 투성이 바보같은 家具들, 불꽃이 타다 남은 숯불조차 없이 가래침으로 더럽혀진 벽난로, 먼지 사이로 비 자국이 남아있는 서글픈 창문, 완성되지 않거나 말소된 원고뭉치들, 연필로 슬픈 날짜를 체크해 둔 달력들이다. 그가 深醉해있던 香氣는 구역질나는 곰팡이 냄새에 섞인 逆한 담배 냄새일 따름이다.

時間이 다시 나타남으로써 追憶, 悔恨, 痙攣, 恐怖, 苦痛, 惡夢, 忿怒, 神經症 등 時間의 惡魔的 行列이 돌아온 것이다. 그는 한 抄 한 抄가 時計錘에서 솟아나면서, 〈나는 삶이다. 견디기 힘든 搖之不動의 삶 ! Je suis la Vie, l'insupportable,l'implacable Vie !〉하고 말하는 듯 느낀다. 時間은 황소를 부리듯 두 개의 바늘로 채찍질하며 그를 재촉하는 것이다.

—《 Et hue donc ! bourique ! Sue donc, esclave ! Vis donc, damné ! 》[63]

비교적 긴 散文詩 La chambre double의 이같은 上昇과 下降의 몽상에서 우리는 '몽상적 미래'의 '현재'를 읽어낼 수 있다. '미래'라는 말을 썼는데, 그것은 詩的 분위기의 構造가 '미래'를 향하고 있기 까닭이다. 이 散文詩에서 '사라져버린 時間'을 그려내고 있는데, 이것은 無時間 즉 永遠과 같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年代記的 時間 秩序에서 解放되어 想像力을 통해 再創造된 自我의 世界이기 때문인데, 永遠은 無限한 時間이 아닌 無時間性, 곧 物理的 時間을 超越하고 이 時間 밖에 있는 經驗의 한 性質을 나타내어 준다.[64]

우리는 La chambre double에서 보았듯이 快樂과 至福의 無時間的 世界에서 깨어나면 다시 時間의 重壓에 눌리게 되는 데, 이것은 到處에 나타나는 下降(現實)→上昇(理想)→下降(現實)의 Baudelaire的 辨證法으로 理解할 수 밖에 없다.

散文詩로 Le fou et la Vénus, Le mauvais Vitrier, Le vieux saltimbanque, Le gâteau, L'horloge, Les tentations ou Éro, Plutus et la gloire, Les Projets 등은 同軌線上에서 읽을 수 있는 作品들이다.

5. 자기로부터의 逃走

'미래지향의 현재'는, Parfum exotique,Chant d'automne, Invitation au voyage, Le Voyage 등에 共通的으로 드러나고 있는 時間 樣相으로, 時制가 '미래'를 내보이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詩에 內包된 陳述의 時間 構造가 그렇다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Baudelaire 詩學의 가장 중요한 것의

62) Ibid.
63) Ibid., p. 282.
64) Meyerhoff, op. cit., p. 54.

하나인 '떠남의 詩學'을 만난다. '떠남'은 그의 想像力의 마지막 知的 冒險으로 'Chant d' automne' 의詩行에서 찾아볼 수 있다.

Il me semble, bercé par ce choc monotone,
Qu'on cloue en grande hâte un cercueil quelque part.
Pour qui ?–C'était hier l'été ; voici l'automne !
Ce bruit mystérieux sonne comme un départ.[65]

마지막 行의 'comme un départ'가 바로 그것이다. 이 詩는 첫 行, 〈Bientôt nous plongerons dans les froides ténèbres〉에서 '죽음'으로 다가가는 '미래지향의 時間'이 暗示하는 것들이 '存在'로부터 떠나야 되는 이미지와 그 이미지의 발걸음으로 가득하다.

–Ô douleur ! ô douleur ! Le Temps mange la vie,
Et l'obscur Ennemi qui nous ronge le coeur
Du sang que nous perdons croît et se fortifie ![66]

時間에 먹히는 삶은 戰慄이며 두려움이어서 時間에서 벗어나는 마지막 방법인'떠남'을 그는 몽상하게 된다. 散文詩 Any where out of the world에서 말하고 있듯이, 인생이란 病院과 같은 곳이어서 현재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라면 항상 좋을 것처럼 믿게 되어 이 세상 밖이기만 하다면 아무 곳이라도 떠나자고 한다. 그의 '떠남'은 그러므로 구체적인 '어느 곳'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거기 là–bas'정도가 고작이다. 이렇게 떠나고 싶어 안달을 부리지만, 그의 '떠남'은 '消滅'에 寄與하지 않는다. 그의 '떠남'은 '바다'와 깊은 관련이 있다. 바다에서는 해가 뜨고 지고, 밀물과 썰물이 있고, 때로 暴風雨가 휘몰아치곤 하지만 태양의 규칙적인 反復運動으로 循環的 時間의 連續性이 있다.[67] 달리 말하자면, 그의 '떠남'은 차라리 '樂園 復歸'의 다른 의미를 띠고 있다. 그는 죽음에 대해서 자신의 不滅을 믿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68]

그의 '떠남'이 '바다' 이미지와는 密接한 것은 感受性이 예민한 소년시절의 바다 여행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믿어진다.[69] 그러면 그에게 '떠남'을 부추겼던 바다 이미지를 살펴보자.

---

65) Baudelaire, op. cit., p. 57.

66) Ibid., p. 16.

67) Baudelaire, *Oeuvres complètes* Ⅱ, pléiade, p. 138 참조 : Il n'est pas un problème agité ou attaqué, dans n'importe quel temps ou par quelle philosophie, qui ne soit venu réclamer fatalement sa place dans les oeuvres du poète. Le monde des astres et le monde des âmes sont-ils finis ou infinis? L'éclosion des être est-elle permente dans immensité comme dans la petitesse? ce que nous sommes tentés de prendre pour la multiplication infinie des êtres ne serait-il qu'un mouvement de circulation ramenant ces mêmes êtres à la vie des époques et dans des conditions marquées par une loi suprème et omnicompréhensive?…

68) Baudelaire, *Correspondance* Ⅰ, pp. 124~125.
1845년 6월 30일, 그가 처음 自殺을 시도했을 때 後見人 Ancelle에게 보낸 便紙중 다음 귀절을 참조 : –je me tue parce que je crois immortel et que j'éspère.…

69) 金鵬九,「보드레에르」, 文學과 知性社, 1977. pp. 72~77 참조.

Ces beaux et grands navires, imperceptblement balancés(dandinés) sur les eaux tranquilles, ces robustes navires, à l'air désoeuvré et nostalgique, ne nous disent-ils pas dans une langue muette: Quand partons-nous pour le bonheur?[70]

Pourquoi le spectacle de la mer est-il si infiniment et si éternellement agréable?

Parce que la mer offre à la fois l'idée de l'immensité et du mouvement. six ou sept lieues représentent pour l'homme le rayon de l'infini. Voilà un infini dimunitif.

Qu' importe, s'il suffit à suggérer l'idée de l'infini total? Douze ou quatorze lieues(sur le diamètre), douze ou quatorze de liquide en mouvement suffisent pour donner la plus haute idée de beauté qui soit offerte à l'homme sur son habitacle transitoire.[71]

인간이 가질 수 있는 美의 가장 높은 觀念을 주기에 충분하다고까지 극찬하는 바다라면 과연 떠나봄직한 바다가 아닐까. 그래서 그는 愛人에게 함께 떠날 것을 勸誘한다. Invitation au voyage의 詩 세계가 그것으로, 〈너를 닮은 그 고장에 함께 가서 한가로이 사랑하고 사랑하다 죽는 감미로움을 꿈꾸어 보자〉[72]고 한다. 3연으로 쓰여진 이 詩의 연마다 뒤에 반복 refrain되는 詩行은〈거기서는 모든 것이 질서, 아름다움, 사치, 고요함 그리고 쾌락, Là, tout n'est qu'ordre et beauté/Luxe,calme et volupté〉이 있을 따름임을 노래함으로써 우리에게도 '떠남'을 꿈꾸게 해 준다. 더우기 마지막 연은 소리내어 읽어보면, 장엄한 아름다움을, 運河 위에 배들도 잠들고 저물녘 보라빛과 황금빛에 물들어 잠드는 세상의 고요함이 펼쳐진다.

Voir sur ces canaux
Dormir ces vaisseaux
Dont l'humeur c'est vagabonde;
C'est pour assouvir
Ton moindre désir
Qu' ils viennent du bout du monde.
-Les soleils couchants
Revêtent les champs,
Les canaux, la ville entière,
D'hyacinthe et d'or;
Le monde s'endort
Dans une chaude lumière.[73]

그렇지만 아직도 '떠나지는 못하고', '떠남'을 꿈꾸고 있을 뿐이다. 그가 정작 떠나는 것은 Le Voyage에서 이다.

Pour l'enfant, amoureux de cartes et d'estampes,

70) Baudelaire, *Oeuvres complètes* I, p. 655.
71) Ibid., p. 696.
72) Ibid., p. 53.
73) Ibid., pp. 53-54.

L'univers est égal à son vaste appétit.
Ah ! que le monde est grand à la clarté des lampes !
Aux yeux du souvenir que le monde est petit ![74]

드디어 〈어느 날 아침, 우리는 떠나는, un matin nous partons〉 것인데, 〈오, 죽음, 늙은 선장이여, 마침내 때는 왔다 ! 닻을 올려라 ! ô Mort, vieux capitaine,il est temps ! levons l'ancre ! 〉하고 命令하는 것이다. 그 곳은 天堂이건 地獄이건 상관이 없으며 새로운 무엇을 찾아내기 위해 深淵 깊숙이 未知 Inconnu의 밑바닥으로 잠기어 들고 싶은 것이다.[75]

여기서 우리는 '등대 Les phares'[76]에 자신의 詩學의 불을 켜놓고 時間으로부터 자신을 아예 초월해 간 Baudelaire를 보게 된다.

Ⅲ. 結　　論

지금까지 다섯 부문으로 나눠 Baudelaire 詩에 나타난 時間 構造를 살펴보았다. 우리는 그의 時間 構造를 把握함에 있어 '과거를 향한 현재', '현재적 현재', '몽상적 현재', '몽상적 미래를 향한 현재', '미래지향의 현재'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썼는데, 이것은 그의 詩作品에 나타난 時間의 內的 構造를 가능한 한 자세히 살펴보고자하는 벼름에서였다. 또한 이같은 詩作品에 나타난 時間을 論議함에 있어 아쉬웠던 것은 더 깊은 研究의 길잡이가 되어 줄만한 텍스트가 아직 없다는 점이었다. 몇권의 텍스트가 탁월하게 천착한 '文學에 있어서의 時間'에 관한 연구는 한결같이 입문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섯 부문으로 나눠 Baudelaire 詩作品에 대해 한 時間 構造의 考察은 우리 나름의 시도이며, 앞으로 더 깊은 研究를 하기 위한 디딤돌에 불과한 것이다. 이같은 시도는, 抒情詩의 일반적인 基本時制가 '현재'인데, 그것을 '표면적 현재'라든가, 나아가서 '역사적 현재'와 '無時間性'으로만 따지기에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런대로 불구하고, 외곬으로 '현재'라는 時間觀으로 Baudelaire 詩의 時間 構造를 把握함에 있어서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우리가 텍스트로 잡은 두 권의 詩集 Les Fleurs du mal, Spleen de Paris의 전체적인 흐름은 이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이 主題를 탐구하는 데는 더 많은 研究와 다른 論文이 필요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제, Baudelaire는 그의 時代를 앞서서 산 現代的인 覺醒에서 빚어진 다양한 時間觀을 가졌음을 우리는 파악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그의 詩作品들이 여러 時間 樣相을 내보이고 있다하더라도 樂園 復歸의 循環論的인 '떠남'의 모습이 강렬한 '현재'의 時間觀 위에 그의 '幸福의 詩學'이 세워진 것으로 우리에게는 보인다.

74) Ibid., p. 129.
75) Ibid., p. 134.
76) Ibid., pp. 13~14.

Résumé

La Structure Temporelle Dans La Poésie De Baudelaire

Moon Choong-sung

La structure temporelle que l'on voit dans la poésie de. Baudelaire nous montre de divers aspects.

Sa conscience qui coule en variant, sans cesse, forme un nouveau monde d'une imagination poétique dans la variation du temps. Par conséquent, sa vision du temps peut être comprise comme une recherche sur l'élucidation d'un soi.

Nous pouvons voir un homme avec les yeux ouverts qui vivait sous la pression de temps dans la phrase "Et j'ai pompé ta vie avec ma trompe immonde ! " et qui veut posséder la vie par laquelle il veut devenir la poète ayant une grande âme dans la peine, la moquerie et la colère.

En d'autres termes, puisque la vie est du temps, les aspects variables temporelles de sa poésie ne sont que les aspects variables de la vie qu'il poursuivait. Nous allons saisir sa structure temporelle en analysant les aspects du temps que ses poèmes nous montrent. Pour faire cela, nous divisons ce mémoire en cinq parties.

1. Fermeture et Ouverture

Le "Présent" s'étend jusqu'à la vie antérieure via les jours de son enfance, puisque la vie présente est la peine, nous pouvons voir les divers aspects pour avoir le bonheur avec lequel il veut sortir de cette peine.

Son "passé" est donc le désir où il rend le "présent" riche.

2. Enfer ou Vie

On considère le "présent" comme le temps naturel et ce "présent" peut être exprimé comme le "présent actuel". La vision du temps "présent" lui est ce monde qui n'est pas d'autre chose que l'enfer, il essaie donc de s'enfuir de cet endroit. Ça se fonde sur la conscience du temps qui provenait de l'aliénation sociale et humaine.

3. Regarder et Rêver

Il ne semble que, comme le "présent rêveur", regarder est rêver. Grâce à l'imagination poétique, rêver est le seul chemin qui arrive au bonheur dans ce monde.

4. Dégradation et Ascension

Le "future rêveur" est lié au présent. Ses poèmes montrent la contradiction d'un monde binaire qui existe entre le monde du mal provenant de la dégradation vers l'enfer et le monde rêvant de l'ascension qui cherche l'utopie idéale.

5. Fuite de soi

Le temps, "présent vers le futur", surmonte la vanité de la révolte et la mort et crée le temps du "départ", C'est lui qui crée ce temps du "départ", et ce n'est pas le Créateur, Par conséquent, il trouve le chemin par lequel il transcende soi-même.

Nous nous sommes aperçu qu'il avait les divers visions du temps venant de l'éveil moderne qui dépasse son époque. Même si sa conscience du temps nous montre les divers aspects, il nous semble qu'il a établi "la poétique du bonheur" avec la conscience du temps "présent" qui montre le vrai "départ" circulaire pour le retour dans l'Utopie.